

영화와 철학, 어떻게 만날까

철학적 담론의 주인으로 떠오른 '영화'

박정하

서울시립대 강사·철학

어떤 평자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90년대는 담론의 영역에서는 '문화과잉'의 시대로 규정된다. 유신 개발독재에 의해 억압되었던 70년대의 담론을 '경제과잉'으로 특징지을 수 있고, 80년대 담론의 중심에 '정치와 이념'이 있었다면, 바야흐로 90년대는 이제 문화가 담론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90년대가 깊어갈수록 우리 사회 문화 담론의 중심을 영화가 차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 국제영화제가 기폭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의 문화담론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출판에서도 영화에 대한 이론서나 평론집이 양에서나 질에서 만만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한 모퉁이에 '영화철학'을 표방하는 책들이 자리잡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영화에 대해 철학자가 쓴 논문이나 단편적인 글들이 없진 않았지만 '영화철학'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다는 점에서 근래에 출판된 책들은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하다.

영화를 통한, 영화에 대한 철학

도대체 영화철학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그런게 가능할까? 영화와 철학은 과연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물음들에 처음으로 대답을 시도한 것은 김영민 교수(한일신학대)의 《철학으로 영화보기, 영화로 철학하기》(철학과현실사, 1994)였다. 의욕이 엿보이는 책 제목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영화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요약해서 보여주려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철학=영화에 대한 철학+영화를 통한 철학'이라는 등식이 바로 그 답이다. 철학으로 영화를 보겠다는 것은 바로 영화에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영화에 대한 철학'을 하겠다는 뜻이다. 또 영화로 철학을 하겠다는 것은 영화를 통해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진행해보겠다는 '영화를 통한 철학'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영화철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물론 한술 밥에 배부르기 힘들 듯이 의미심장한 제목과 의욕에 비할 때, 그의 첫 시도의 내용들은 그다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영화에 대한 철학' 부분은 아직 영화이론이나 영화평론의 수준을

우리 사회의 문화담론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그 한 모퉁이에 '영화철학'을 표방하는 책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영화로 보는 철학, 철학으로 보는 영화를 시도한 책들은 영화와 철학적 사유의 만남을 가능케 하고 있다.

왕가위 감독의
《중경심림》의 한 장면.



뻘뻘하고 있어서 굳이 왜 철학이라고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또한 '영화를 통한 철학' 부분에서도 굳이 영화를 통해서 제시할 만한 자신의 철학적 작업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이 두 작업이 애매하게 얽혀 있다보니 어느 한쪽도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은 채, 영화가 소재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첫 시도는 항상 어려운 법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실천적으로 제기한 물음들-도대체 영화철학이란 무엇일까? 영화이론이나 영화평론과는 다른 영화철학이 가능한 것일까?-에 대한 저자의 두번째 시도를 기다려 보는 것은 독자들의 당연하면서도 설레는 바램일 것이다.(영화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읽어봐야 할 것이다.)

'영화철학이란 무엇인가? 영화와 철학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주관식 물음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답을 우리는 번역서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바로 질 들뢰즈의 《영화 1》(주은우·정원 옮김, 새길, 1996)이다. 이 책은 영화이론이 아닌 영화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표방하고 있다. 들뢰즈는 철학사에서 영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한 최초의 철학자이다. 그의 작업은 언뜻 보면 영화라는 매체를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므로 '영화에 대한 철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들뢰즈의 궁극적인 의도는 영화를 매개로 운동-이미지와 시간-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이미지에 대한 자신의 형이상학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영화

1》은 표면적으로는 '영화에 대한 철학' 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영화를 통한 철학', 더 정확히는 '영화를 통한 형이상학'이 어떤 것 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독자 입장에서 부딪치는 문제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차이와 반복》을 통해 제모습을 갖춘 들뢰즈 자신의 철학이나 베르그송의 운동 형이상학, 칸트와 니체, 피스의 철학에 대해서 상당한 조예가 없을 경우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또 설사 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더라도 영화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정상까지 다다를 수가 없다. 그래서 《영화 2》 번역본의 출간이 한편으로는 기다려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철학의 새로운 영역 개척

들뢰즈를 전공으로 공부해서 추종할 생각도 없고, 그의 사상을 남김없이 이해할 생각도 없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도 들뢰즈 이론에 기반하여 영화철학의 한 가지 측면을 충실히 보여주는 책이 최근에 나왔다. 바로 박성수 교수(해양대)의 《들뢰즈와 영화》(문화과학사, 1998)이다. 일종의 논문집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영화를 통한 철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들뢰즈의 '영화를 통한 철학'이 어떤 작업인지 충실하게 설명해 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저자 자신은 들뢰즈 이론을 바탕으로 '영화에 대한 철학'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지속시키고 있다. 철학자이면서 실제로 영화학을 공부했

고, 실제 영화평론도 하고 있는 저자의 특이한 이력이 들뢰즈의 '영화를 통한 형이상학'을 바탕으로 '영화에 대한 철학'을 나름대로 정립시켜보려는 시도의 바탕이 되었을 법도 하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영화에 대한 철학' 작업은 철학 입장에서 '철학의 전문화'라는 맥락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철학 쪽도 물론이지만 특히 영화이론이나 영화평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것이다.)

영화 철학의 또 다른 영역이 어떤 모습일지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책은 최근에 나온 김성환 교수(대진대)의 《나는 본다, 철학을》(동녘, 1998)이다. 스스로 못박고 있듯이 저자는 '영화'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다. 따라서 영화론이나 '영화에 대한 철학'을 할 생각은 없다. 그의 관심은 '영화를 통한 철학' 쪽에 가깝다. 정확히 말하자면 영화를 통해 자기 철학을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를 통한 철학교육'이 바로 이 책의 화두이다. 철학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치열한 고민이 이 책의 뿌리라면, 그 매체로서 영화를 선택한 실험적인 시도가 성공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열매이다.

'철학 에세이'라는 방식을 취한 이 책의 장점은 우선 무엇보다도 쉽고 재미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면서도 30편의 영화를 통해 10개의 주제를 철학적으로 다루는 풍부함도 갖추고 있다. 한편의 영화에서는 부담없이 하나의 소주제 만을 다루면서도, 결국 세편을 묶으면 대주제 하나에 대한 꽤 심층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한 체계적인 기획이 철학책으로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점일 것이다. 철학의 대중화라는 필자의 오랜 목마름을 충족주는 한모금 생수 같은 책이다. (철학교육에 관심이 있는 철학선생이나, 영화를 좋아하면서 철학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한번 읽어 봐야 할 것이다.) ❖